

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경북 대구와 충북 오송으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대구·경북 신서 혁신도시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평가에서는 대구 신서 혁신도시가 가장 높은 등급인 'A'를 받았고 서울 마곡, 대전 신동, 경기 광교, 강원 원주, 충북 오송, 경남 양산 6곳이 'B' 등급을 획득했다. B등급 지역 가운데 점수가 높은 경기 광교, 강원 원주, 충북 오송 3곳을 놓고 복수단지 조성 시 기대효과 등을 고려, 추가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선정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하고 단기간 경쟁과 특화로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2개의 집적단지를 조성키로 결정했다며 2개로 단지가 늘어난 만큼 관련 예산도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오는 2038년까지 30년간 총 5조6000억원(시설운영비 1조8000억원, 연구개발비 3조8000억원)을 투입,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100만㎡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정부는 두 지역에 조속한 시일 내 지정·고시절차를

거친 후 연내 단지별 세부 조성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 2012년까지 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첨복단지가 2012년 완공돼 가동하면 향후 30년간 글로벌 수준의 첨단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를 개발하게 되고, 국가 전체 생산증가효과는 총 82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는 경산과 영천, 대구 등의 산업지대와 포항과 경주의 인적자원,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이용한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오송은 대덕연구단지와 오창, 천안 등 대전광역시의 충청남북도 핵심도시와 불과 30분 이내에 있어 이른바 생명공학, 의학, 첨단 IT 및 과학기술이 집결한 차세대 산업 트라이앵글 역할을 하게 됐다고 전자신문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의료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보건의료의 산업화를 통한 수익창출 및 수입 대체 효과가 촉진되며, 21세기 의료서비스의 메카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경북은 국가 의료산업의 첨단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첨단의료도시로 거듭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대구는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연계 및 공동연구개발 실적이 높고, 정주여건과 자치단체 지

원의지 및 국토균형 발전효과 등 여러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경북은 경산과 영천, 대구 등 세계적 의료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포항, 경주의 방사광, 양성자가속기, 나노기술집적센터 등 우수한 연구개발이 폭발적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선도산업 분야중 IT융합의 의료분야 발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경북은 당초 의료산업 분야 우수인력유치를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재유치기금뿐만 아니라 메디시티기금 2500억원과 땅값 지원금 4000억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단지로 지정된 대구 신서혁신도시는 당장 100만㎡를 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신서혁신도시는 도심형 단지로 100% 보상이 완료돼 즉시 설계 및 착공이 가능하다. 공공연구기관 용지는 대구시가 100% 무상제공하며, 민간연구기관은 입주구역 분양가를 3.3㎡당 100만원에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한다.

연구인력과 의료기관도 풍부하며, 교육문화환경 등 정주여건도 탁월하다. 특히 의료서비스 분야는 지역 반경 2.5km 내에 100년 전통의 대학병원 5개와 함께 30여개의 대학이 모여 있어 의료관련 각종 R&D 인력이 풍부한 편이다.

국가지정 임상시험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포스텍 등 세계적인 첨단 융·복합 의료연구 인프라가 구비돼 있다. 의료산업의 핵심인 IT 및 신소재 산업의 생산액은 전국의 37.8%, 25.4%에 이른다. 세계적인 의료산업체인 지멘스가 이미 입주해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10여개 글로벌 의료기업들이 대구경북지역에 입주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오송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연구 개발부터 신약개발허가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가치사슬체계가 구축돼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의료단지가 구현될 것이다.

경제적인 효과로는 이미 확보된 인프라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오송은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 6개 연구지원기관 및 국내외 59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충북도는 생명공학연구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존 연구시설 및 정보화 기반을 단지 준공전까지 활용, 단지 조성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단지 조성 비전으로 첨단 의료 선진국가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목표는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의료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는 것이다. 산·학·연·관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설립,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다양한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과 민간·기업연구소를 지원·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경영방식을 도입한 재단은 향후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의 대·내외 협동연구 지원, 의료산업분야 연구 및 지원 대상 기관의 발전 정책 수립, 의료 산업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 지원, 국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등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충북도는 단지에 전국 최고의 교육 및 의료타운을 건설하기로 했다.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1500병실의 종합병원 설립과 함께 BT전문대학원을 설립,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근무할 석·박사 과정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원이 들어서고, 과학고 및 외국어고를 설립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